

# ‘오달수 쇼크’에 빠진 한국 영화계

### ‘신과함께 2’ 재촬영·묘안 찾는 다른 영화...추가 비용 수십억

“한마디로 패닉 상태입니다.” 한국 영화계가 ‘오달수 쇼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성 추문에 휩싸인 오달수가 주·조연을 맡아 개봉을 기다리는 영화만 4편. 그가 조연으로 출연한 ‘신과함께-인고연(‘신과함께 2’)’이 재빠르게 재촬영을 결정했지만, 나머지 영화들은 묘안을 찾느라 부심하고 있다.

오달수가 출연하지 않은 영화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 배우나 감독 등 영화인을 상대로 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언제 어디서 추가로 터져 나올지 알 수 없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모 영화사 대표는 “영화계 전체가 비상”이라고 전했다.

◇ 오달수 주연 3편·재촬영 땀 10억~20억 추가 비용  
오달수는 ‘이웃사촌’ (이환경 감독),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김지훈), ‘컨트롤’ (한장혁) 등 3편의 작품에 주연으로 출연했다. ‘이웃사촌’은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니 부모...’는 이십세기폭스코리아가 각각 투자·배급을 맡았다. 최재원 워너브러더스코리아 대표는 지난 3일 통화에서 “본사뿐만 아니라 논의 할 대상이 많다. (재촬영 등)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런 사례가 없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개봉 예정인 ‘이웃사촌’은 ‘7번방의 선물’을 연출한 이환경 감독의 복귀작으로, 가택연금 중인 예비대선주자와 그를 도청하는 비밀정보요원의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오달수가 가택연금 중인 야당 정치인 역을 맡았다.

이 영화의 순제작비는 약 80억 원. 오달수의 비중이 큰 만큼, 재촬영하려면 약 15억~20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영화계는 추정한다.

‘니 부모...’는 명문 국제중학교의 한 남학생이 호수에 빠져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자 같은 반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로 소집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오달수는 극 중 피해자의 아버지 역을 맡았다. 순제작비는 50억 원으로, 재촬영할 경우 제작비가 10억 원가량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작품은 이십세기폭스가 올해 제작·배급하는 유일한 한국영화로, 폭스 측은 현재 본사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월트디즈니가 21세기폭스(20세기폭스의 모회사)의 영화사업 부문 등을 인수하면서 본사의 의사 결정 라인 등이 복잡해져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화계 관계자는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승인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할리우드 배급사들은 ‘미투’ 운동에 대해 한국보다 더 민감한 편이어서 재촬영 가능성이 점쳐진다.

영화 ‘컨트롤’은 아직 배급사가 정해지지 않아 개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 추문에 휩싸인 최일화는 분량이 많지 않지만 ‘신과함께 2’와 ‘협상’에 출연했다.

‘신과함께 2’ 측은 “오달수뿐만 아니라 최일화 분량 역시 모두 털어내고 재촬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두 배우를 대체할 배우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최일화는 현빈·손예진이 주연한 ‘협상’에서 이야기 전개상 중요한 악역으로 등장했다. 이 때문에 제작사 JK필름도



오달수가 출연한 ‘신과함께’ 스틸컷. 2편은 재촬영을 확정지었다.

재촬영 등을 검토 중이다.

◇ 달라진 영화계 풍경...‘뒤돌아보고, 농담도 조심’

오달수 출연작이 아닌 다른 영화들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영화계 인사는 “배우나 감독의 사생활을 전부 알 수는 없지만 “모임이 있을 때 참석자들과 ‘권력관계’에 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미투’ 폭로 이후 영화계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시사회 시갈벽적인 뒤돌아가 줄고, 농담도 조심하는 분위기다. 한 중견 영화인은 “신인 여배우들과 만

나는 자리는 아예 가지 않는다”면서 “얼마 전 VIP 시사회 이후 열린 뒤돌아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영화인은 “예전에는 여자 후배들이 밥을 사달라고 하면 흔쾌히 함께 가곤 했지만, 지금은 주저하게 된다”면서 “모임이 있을 때 참석자들과 ‘권력관계’에 있는지 등을 따져보게 된다”고 토로했다.

한 중견 제작자는 “이런 ‘미투’ 운동은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면서 “영화계 전반의 문화가 바뀔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 제이홉, ‘금주 당신이 들어야 할 5곡’ 선정

### 랩 중심 밝은 노래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

방탄소년단 제이홉(본명 정호석)의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Hope World)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이 추천한 ‘금주 당신이 들어야 할 5곡’에 선정됐다.

타임은 2일(현지시간) ‘금주 당신이 들어야 할 5곡’(5 Songs You Need to Listen to This Week)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제이홉의 믹스테이프 수록곡 ‘호프 월드’를 비롯해 5곡을 소개했다.

타임은 “제이홉은 방탄소년단의 멤버 중 세 번째로 믹스테이프를 발표했다”며 “앨범명과 같은 첫 번째 트랙 ‘호프 월드’는 랩이 중심이 되는 밝고 신선한 곡이다. 한국어로 노래한 이 곡은 제이홉의 전성기가 강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놓치

기 힘들 것”이라 평가했다.

또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활동을 이어나가면서도 잇달아 믹스테이프를 선보이는 것이 팀 유지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타임은 “중종 인기 그룹의 멤버가 솔로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며 “월드렉션 또한 개인의 프로젝트를 위해 그룹 활동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은 개별 활동으로 인한 그룹의 분열을 피하기 위해 활동 중 믹스테이프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타임은 이 밖에도 5곡 안에 비온세와 제이지가 피처링에 참여한 DJ칼리드의 ‘톱 오프’(Top Off)와 요라 랩고의 ‘포



유 투’(For You Too), 톰 미시와 드 라 소울의 ‘잇 런스 스루 미’(It Runs Through Me), 엠비 마크의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를 꼽았다.

## “개그로 스트레스 풀어요”

### 대세 양세형, 데뷔 15년만에 전성기

최근 방송가에서 가장 바쁜 예능인 중 하나를 꼽으려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개그맨 양세형(33)이다.

그가 데뷔한 건 2003년, SBS TV 공개 코미디 ‘웃찾사’ 시절이었지만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전성기를 맞았다.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도 셀 수가 없다.

본업에 충실한 tvN 공개 코미디 ‘코미디빅리그’도 꾸준히 하면서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에 합류했고, SBS TV ‘집사부일체’에도 참여 중이다. XtvN ‘사랑도 통역사 집’에도 출연한다. 이밖에 웹예능 ‘양세형의 숏터뷰’, KBS Joy ‘양세형의 짤방공작소’ 같은 신선한 포맷에도 도전했다.

그러나 정작 양세형은 “지금은 제 전성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마포구 삼양동 CJ E&M

사옥에서 ‘코미디빅리그’ 녹화 중 만난 그는 “남들이 전성기라고 하는데 사실 ‘대세’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건 이미 지난 일 같다. 전성기도 지났다”고 웃으며 “전 그냥 편안한 게 좋다.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할 뿐, 전성기라는 생각은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많은 프로그램에 동시에 참여하면서 힘들지 않느냐는 물음에도 그는 그저 즐기고 있다고 답했다.

“예전에는 한 개만 하기도 벅했는데 지금은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요리에 비유하면 처음에는 라면 하나 끓이기도 벅했는데 이제는 라면도 끓이면서 계란 요리도 하고, 가스레인지도 다 활용하는 셈이죠. (웃음) 처음에는 그렇게 동시에 하다가 불날 뻔도 했는데, 지금은 불 조절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양세형은 그러면서 조금씩 쌓이는 스트레스는 본업인 ‘개그’로 푼다



고 했다.

“‘코미디빅리그’ 무대가 끝나면 항상 하는 말인데, 제가 하는 코너 무대가 끝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어떻게 풀리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관객분들께서 웃는 것 딱 보고 무대 계단 내려올 때면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면서 ‘이 맛에 개그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장점은 관객들의 반응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는 그러면서 “신나게 노는 방법을 알면 힘들 때가 와도 잘 이겨내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TV					
	KBS1	KBS2	MBC	KBC-SBS	E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00 모닝와이드	00 한국기행(재) 20 세계테마기행(재)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50 역류	30 KBC 모닝 730	30 로보카 폴리 45 출동! 슈퍼왕스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템즈	00 딩동댕 유치원 30 플라워링 하트 45 방귀대장 뽕뽕이
9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0 만가트(재) 15 화산섬의 비밀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절정(재)	10 SBS 뉴스 40 KBC 생활뉴스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한식의 마음	00 인형의 집(재) 40 라디오 로맨스(재)	00 12 MBC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55 열린공간 토크쇼	00 EBS 정오뉴스 10 극한직업 스페셜
12	00 KBS 뉴스12 30 문화산책(재)				
1	20 콘서트 필(재)	40 강력추천 배틀 트립	10 헬로키키(재)	55 닥터 365	00 다큐 오늘 40 엄마를 찾지마(재)
2	10 공감다큐, 사람(재) 35 집중 인터뷰 이시람(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05 드림 주니어 스페셜 35 사이닝스타	00 뉴스브리핑	30 똑딱맨(재)
3	0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30 TV 유치원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30 TV 유치원	05 랭킹쇼 1,2,3 스페셜		00 호기심 나라 오키도 25 그림 그려줘, 루이 45 부릉! 부릉! 브루미즈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00 양코르 MBC 스페셜	00 도쿄콘서트 화통(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닥터 하우스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영 30 전생에 원수들(재)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10 딩동댕 유치원(재) 15 로보카 폴리(재) 30 마사와 곰
6	00 6시 내고향 55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착한 마녀전(재)	00 특!특! 보니 하니 25 로보 발명왕 리스트
7	00 KBS 뉴스 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원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짜와 생활 05 TV블로그 품자락	00 스키어더맨 30 EBS 뉴스 50 다문화 고부 열전(재)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보24 55 제보자들	55 베그덕 히어로즈	00 SBS 8 뉴스 35 KBC 8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다큐 오늘
9	00 KBS 뉴스 9 40 가요무대				30 한국기행 50 EBS 다크프라임
10	4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25 다시 만나는 하얀겨탑	00 키스 먼저 할까요?	5 메디컬 다크-7요일
11	10 나의 살던 고향은(재)	10 안녕하세요	35 테마기행 길	00 동상이몽2	55 엄마를 찾지마
12	00 이웃집 찰스(재) 50 생활의 발견(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45 지식채널e 30 세계의 드라마 (에이워드)

오늘의 운세 3월 5일(1월 18일)

김도완 선생 제공 02-766-1818 www.esazu.com

 子	48년생 피는 물보다 진하다. 60년생 소인배의 이간질은 무시하라. 72년생 동료에게 너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줘라. 84년생 눈에 공작지가 씌이면 어쩔 수가 없다.	 午	42년생 가벼운 운동을 통해 건강을 지켜라. 54년생 사업가는 수입이 자꾸만 늘어 간다. 66년생 해보고 생각하자. 해보자! 해보자! 78년생 결과 실망스럽다.
 丑	49년생 기쁜 소식을 듣는다. 61년생 평소의 올바른 몸가짐은 구설수를 예방한다. 73년생 행운이 찾아오니 하루가 순탄하다. 85년생 자신감이 넘치는 날이다.	 未	43년생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55년생 인내심과 지구력이 필요한 날이다. 67년생 손해만 있고 유익한 점은 별로 없다. 79년생 마음껏 하고 싶은 일을 하라.
 寅	50년생 오행으로 인해 시비가 생긴다. 62년생 예상하지 못한 지출 때문에 속상하다. 74년생 잘못된 결정의 취소는 빠른수록 좋다. 86년생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申	44년생 나의 품격이 높아질 일이 있다. 56년생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68년생 사태를 관망하고 신중히 처신하라. 80년생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卯	51년생 새 옷을 입고 외출한다. 63년생 조금 더 깊게 고민하고 신중히 처리하라. 75년생 예상치 않은 손재수를 대비하라. 87년생 내일을 위해 휴식을 취하라.	 酉	45년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을 가는 것이 인생이다. 57년생 주변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라. 69년생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81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辰	52년생 이치에 맞는 언행이 요구된다. 64년생 주변상황을 살펴 현명하게 행동하라. 76년생 귀인을 만나니 어려움이 해결된다. 88년생 정직하고 당당하게 행동하라.	 戌	46년생 친구가 있으니 나는 외롭지 않다. 58년생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라. 70년생 자존심을 지켜라. 82년생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巳	41년생 하늘이 내편이니 두려울 것이 없다. 53년생 주변에 안정과 행복이 넘쳐난다. 65년생 평온한 일상 속에 웃음이 가득하다. 77년생 웃으면 복이 찾아온다.	 亥	47년생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넘쳐나니 마음이 심란하다. 59년생 건강에 주의하라. 71년생 동서남북 운이 활짝 열렸다. 83년생 나에게서 나만의 수호신이 있다.